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 청원

본 청원은 2024년 8월 16일 금광연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9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임

1. 청원요지

- 현재 신우초등학교의 재학생은 약 1,400명으로 그중 1,200여 명이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의 교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음. 평일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이 집중적으로 이동하여 좁은 교량구간에 병목 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우천 시에는 횡단보도에서 인도로의 진입이 어려워 어린이들이 차도에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통학로 개선이 시급함.
- 현재 해당 교량의 폭은 2.6M지만, 이어지는 보도의 폭은 5.4M로 조성되어, 인도의 너비에 맞추어 교량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025년도 이후 학생 수(1,800여 명)가 급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통학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청원함.

2. 관련 현황

-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 청원」은 신우초등학교의 재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교량의 확장을 청원하는 사항임.
- 신우초등학교(소재지 : 감일동 532)는 2021년 9월 1일 개교[신우초등학교 개교(8학급), 신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학급)]하여, 2024년 현재 초등52학급(특수2학급), 병설유치원 6학급(특수 1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신우초등학교 재학생은 2024년 6월 현재 1,405명으로 해당 교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인원은 1,202명이나, 2025년도 이후 학생 수는 최대 1,800여 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예상됨.

현장 사진



해당 교량(빨강)의 폭과 이어지는 보도(파랑)의 폭이 달라 취학아동의 등·하교 때에 병목 현상이 발생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 청원」은 취학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항임.
-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자 안전 확보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로서,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이며, 국토교통부의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마련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등 조치가 있었음.
- 이와 같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사고¹⁾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하남시 사례로는 ‘덕풍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례가 있음.

□ [경기] 개선대상 통학로 412개교(대표사례 덕풍초등학교)

문제점 요	전신주, 노상주차장으로 인한 운전자 시거제한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주로 인한 시거 제한 ◦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도로폭 협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주 이설 또는 지중화(3개소) ◦ 노상주차장 제거 및 도로폭 확장

1) 2021년 6월 8일,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7쪽, ‘전국 2,273개 초·중·고교 통학로 안전확보 대책 국무회의 보고’

- 이번 청원은 신우초등학교 취학 아동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계 법규】 —

「지방자치법」

-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